

사료업은 초기단계, 양계사료중 산란계가 70% 차지

□ 취재/김동진 기자

4. 백두산 가는 길

백두산으로 가는 장백로는 1987년에 개통이 되었다.

연길시에서 부터 백두산 입구까지 260Km로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해 장장 6시간을 먼지와 함께 달려야 했다. 가는 도중 찢옥수수를 파는 조선족 여인들과 약초를 파는 조선족 남자들의 접촉 이외에는 넓은 벌판을 배경으로 옥수수, 해바라기, 콩들이 밭에 펼쳐져 있었고 노랗게 익은 벼들이 추수를 앞두고 있었다. 중국의 옥수수 파종 면적은 722만1천ha로 세계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생산량의 13.9%인

1,327만톤이 바로 이곳 길림성에서 생산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마다 방사로 키우는 닭들이 거리에서 노니는 광경이 눈에 자주 띄었으며 대단위 농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백두산입구 이도백하에는 미송, 자작나무 등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트럭에 의해 운반되는 통나무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 마을 어귀마

다 목재검사소가 있어 벌목을 엄격히 통제하였으며 곳곳에 임업공업소(목공소)가 눈에 많이 들어왔다.

체감온도 영하 10℃를 느끼며 백두산을 찾은 우리를 반겨주기라도 하듯 천지(天池)는 맑고 웅장한 자태를 드러



△ 백두산 정상에서 천지를 뒤로하고 기념촬영



△ 농촌의 운반수단은 주로 우마차이며 산림자원은 트럭으로 운반된다.

내고 있었다.

천지까지의 높이는 해발 2,194m이며 16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장군봉으로 높이가 해발 2,749.2m 인데 천지는 9,800㎡의 넓이에 25톤의 물이 담수되어 있다. 천지의 수심은 204m이며 11월 하순에서 6월 초순까지 1~2m두께의 얼음이 언다.

백두산 중턱에 위치한 68m 높이의 장백폭포와 62~72℃의 유화수소 성분의 노천온천에서는 아직도 온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천온천에서는 온천물에 계란을 삶아 3개에 천원을 받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백두산에서 맛본 계란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가 없다.

연길시로 돌아오는 길에도 문시를 방문하였는데 520km의 길이를 자랑하는 두만강과 접경지대에 있는 도문시는

경공업이 발달한 곳으로 함경도와 접해있어 북한과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1년에 10만 명정도가 통행증을 발급받아 두만강 다리를 통해 주로 상업왕래를 한다.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한 조선족 여인은 상업상 북한에 자주왕래하며 옷과 공예품을 가져가서 해삼, 낙지 등 해산물을 사가지고 오는데 북한에서는 최근에 한끼도 못먹을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말을 해준다.

도문시에서 환갑을 맞은 조선족들이 한복을 입고 춤추는 광경이나 용정국민학교에서 운동회 모습은 우리나라 시골 풍습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감 어린 모습이었다.

도문시에서 멀지않은 한 농촌마을에 들러 고향이 북한인 조선족 농가를 방문했는데 농사뿐아닌 양계(20수정도), 양봉도 경영하면서 그 동네에서는 제법 잘 사는 집이었다. 집은 흙벽돌로 지어진 기와집인데 방은 하나이고 부엌과 침실이 한 건물구조내에 있었다.

점심을 먹고 가라는 주인의 요청을 만류하고 여행일정상



△ 연길시 서시장에서 양념통닭, 닭발, 닭다리 등을 팔고 있다.

표1. 연길시의 서시장에서 조사한 물가

축산물	양념통닭:4,000원, 양념닭다리:3,000원/kg, 양념닭발:2,000원/kg, 양념 닭날개:3,000원/kg, 통닭:1,700원/마리, 계란:640원/kg, 삶은계란:70원/개, 오리알:70원/개, 돼지고기:2,000원/kg, 쇠고기:2,200원/kg
농산물	배:200원/kg, 감자:140원/kg, 포도:400원/kg, 마늘:280원/kg, 배추:200원/kg, 무우:200원/kg, 양파:160원/kg, 과:160원/kg, 참쌀:560원/kg, 일반미:400원/kg, 고추:300원/kg, 가지:240원/kg, 오이:360원/kg, 토마토:400원/kg, 수박:100원/kg, 사과:700원/kg, 고구마:200원/kg
공산품	라이타:100원/개, 비누:400원/개, 두루마리 휴지:200원/개, 잠바:8,000원, 운동화:8,000원/짝, 양말:700원/개, 와이셔츠:5,000원/개, 소형탁상시계:3,000원/개, 지갑:7,000원/개, 구두:20,000원/짝
기 타	콜라:500원/캔, 생수:320원/병, 맥주:1,000원/캔, 전화비:120원/분, 휘발유:185원/리터, 신문:120원/부, 전기세:1,000원/월(일반가정)

※ 한국돈으로 환산한 가격임.



△ 계란은 박스에 담아 1kg당 6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아쉽게 여정을 떠나야만 했다.

연길시를 떠나기전 축산물 가격동향 및 물가를 파악키 위해 연길시에서 가장 큰 시장인 서시장을 들렀는데 통닭 한마리(약 1.5kg)에 1,700원

에 판매되고 있으며 계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특란, 대란 등 난종을 구분하여 파는 것이 아니고 전체 중량으로 상자에 담겨진 채 1kg에 640원씩 판매되고 있었

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때 같은 기간(9월) 국내 통닭 1마리에 2,800(1.5kg기준)원 하는 것에 비해서 39% 싼 가격이며 계란의 경우 특란기준 39원으로 국내 95원에 비해 59%정도가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북경 미원사료 공장 및 중일양계장

1,150만 인구가 사는 북경시는 3,500대의 택시, 8백만대의 자전거, 각종 차량들로 도심의 출퇴근 시간은 서울못지 않은 교통체증을 보인다고 한다.

북경 미원사료공장은 북경시에서 한시간 남짓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다. 도착지에 근접하면서 계분과 계란을 실어나르는 광경이 눈에 자주 띄었다.

7,800평 부지에 360만불(28억8천만원)이 투자되어 '96년도에 완공될 미원 사료공장은 미원과 중국정부가 6:4 비율로 합자를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다.

현재 가동중인 공장은 배합기와 분쇄기가 있는 정도이고 대부분의 작업이 수작업에 의존하는 형편으로 한달에 2,000톤의 양계사료가 생산되며 1일 600톤 정도가 17만수 규모의 농장(중일양계장)에 공급되는 실정이다. 미원사료는 115명의 조선족이 근무하며 한국인은 미원 본사에서 2

명이 투입되어 있다. 근로자의 학력은 중졸 정도이며 나이는 평균 35세이다.

한달 임금은 10만원인데 숙소를 보장해준은 물론 생필품, 난방비, 식사까지 제공하므로 실질적인 임금은 수령액의 25%정도가 가산된다. 근로자들은 동기만 주어지면 한국인 못지않게 일을 잘 하는데 분위기 조성이 잘 안되어 생산성은 한국과 비교해 볼때 10%밖에 안된다.

중국의 배합사료생산량을 보면 양계사료 30%, 양돈사료 50%, 오리과 물고기 등 기타사료가 20%를 점유하고 있는데 양계사료중 70%이상 산란계사료이고 비육우와 젖소사료는 대부분 농가에서 자가배합을 하여 사육하므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며, 전체적인 배합사료 산업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북경 미원사료공장 책임을 맡고 있는 최승인 총경리에 의하면 사료공장 진출은 전망이 있으나 원자재들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채산성이 떨어지는 단계이므로 사업성이 불투명 한 것이 현 실정이라 설명하고 국내 업체들 끼리

힘을 모아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중국내에서 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어려움을 들려준다. 예로 태국의 CP그룹은 중국 요소요소에 30

여개 공장이 분산되어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직원 오토바이 공장이 구비되어 있을 정도로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고 뇌물까지 오고가면서 당과 결탁이 되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흑자만 해도 10%가 넘는다고 한다.

산란계 17만수와 종계 6,500수를 보유하는 중일양계장은 '80년대초 일본과 중국이 합자한 농장으로 한동에 7,000수의 산란계가 24개동이 있는 집단농장이다. 산란계의 연간 산란수는 273개인 데 품종은 하이라인과 하이섹스가 사육되어지며 하이라인의 초산 일령은 158일(22주)이고 하이섹스는 165일(23주)인데 환우를 두번 이상 실시하기도 한다.

우리 일행을 위해서 농장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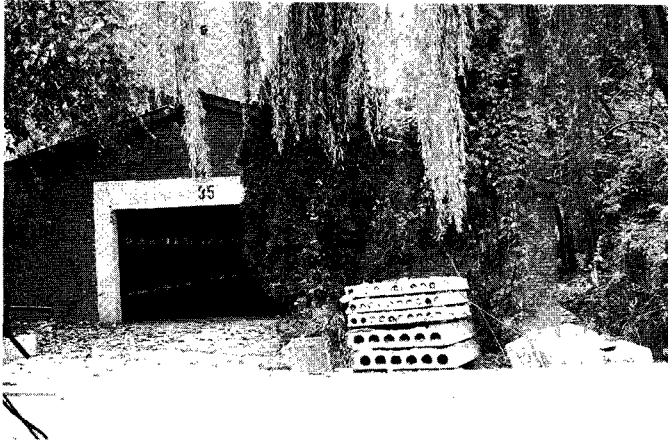


△ 북경 미원사료공장 최승인 총경리의 현황 설명

에서는 양계장 소개를 담은 비디오를 준비하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농장의 산란계사와 종계장이 소개되고 인공수정, 방역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중일농장은 개방계사로 A형 2단케이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내에서는 3,4단 무창계사도 선을 보이는 실정이라 한다.

양계장의 특징은 통풍이 잘되는 반면 공간에 비해 사육효율이 떨어지며 원치커텐을 이용하여 통풍과 보온을 실시하는데 국산제품이 없기때문에 고장이 나면 힘들다는 어려움도 들려 주었다.

중국의 대부분의 농장이 정부가 관장하는 국영기업 형태로 사육, 판매, 수출되어지며, 개인농장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농장조직은 당조직체계



◁ 농장(A형 2단케이지) 한동에 7천수가 사육되는 중일

로 되어 있으며 상급농장 밑에 소농장들이 귀속되어 있다.

농장관리는 실질적으로 농장장이 하지만 총관리는 당서기가 맡아 운영을 하는데 당서기는 정부, 중국가금업협회, 각 시와 성에 있는 가금업협회와 연락이 되어있으며 생산부터 수출까지 정부에서 획일화된 체제로 운영된다.

취재를 위해 농장을 보려했으나 계사내부를 보여줄 수 없다는 말에 끝내 먼 발치에서 카메라에 흠뻑들로 쌓은 계사를 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6. 결 론

중국은 축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초지면적이 전 국토의

33%에 달하는 3억2천만ha이며 이 가운데 이용가능한 면적이 70%나 된다.

결으로 드러난 양계산업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넓은 땅과 풍부한 인력을 가진 중국의 양계산업은 자동화와 기술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다.

2백년 동안 만리장성을 축조한 그들의 끈기를 생각할때 1년이 지나면 변화가 오고 3년이 지나면 대변화가 오고 몇년만 지나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될거라는 그들의 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코 서두름이 없이 자기들이 목표하는 일을 언젠가는 이루어 놓는 그들의 만만디 정신이 게으르거나 미개하다

고 치부할 일만은 아니다.

최근들어 자동화가 보급되기 시작한 중국의 양계산업은 외국업체들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투자가 활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사료, 기자재, 약품 회사들이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사료회사들의 경우 진양사료, 미원사료, 대한제당이 사료산업에 진출한 상태이며 투자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도심에서는 인구난, 교통난, 주택난 등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자본주의 사회로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라 물가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시찰도중 연길시의 동북아 호텔에 투숙중 조선족 가이드였던 최씨의 방에 도둑이 들어 가방에 든 현금이 모두 없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여행 마지막날 일행들이 성의를 모아 도와주는 미덕을 남겼다.

끝으로 시찰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협조해주신 단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양 11**